



한울림 교회

방송 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주 일 예 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찬송하는 소리 있어(찬 19)

선한 능력으로

이 몸에 무슨 소망 있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당신은 특별한 사람”

사도행전 12:24-13:3

“선한 목자되신 우리주”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찬 461)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인도자

다같이

김은희자매

김원재목사

샤마임찬양대

설교자

다같이

인도자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 예배 후 “2020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3. 다음주(2/14)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4. 한울림교회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일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되어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5. 2021년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예배 후 나가실 때, 마스크 가드를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7.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8.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전환점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출생, 진학, 결혼, 취업, 사망 등 큰 전환점은 물론이요, 작은 변화와 전환점도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떤 때는 모르고 지날 때도 있고, 크게 느끼며 힘들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와 전환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은 개인의 삶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사건일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장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입니다. 변화에 잘 대처하면, 그것은 좋은 전환점이 되겠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쇠락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울림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내부적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배당 건축 완공을 통해서 자체 예배당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8일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세 곳의 예배 처소를 전전했습니다. 자의로만 옮긴 것이 아니기에 전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2017년까지 베이사이드 예배당을 임대했습니다. 2018년부터 1년반 동안 Bellerose 예배당을 빌려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체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교회적 입장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놀라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갈까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감지하며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14세기 시작된 유럽의 흑사병이 중세사회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근대로 진입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무너지는 봉건 영주 세력들이 있었고, 그 전환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세력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교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락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환점은 모든 이들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대처하는 공동체나 사람들에게는 부흥의 길로, 잘못 대처하는 이들에게는 쇠락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이 전환점이 유익하도록, 부흥의 길로 이어지도록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